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이름	한XX
파견국가	United Kingdom	파견도시	Essex, Colchester
파견대학	University of Essex	파견기간	2019-09-27~2020-6-30
귀국여부	Y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Essex 대학교는 London Liverpool Street에서 기차 타고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국립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한국의 부산대학교, 순천향대학교, ISEP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립대학교와 교환학생이 맺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영국 친구한테 물어보니 Essex 대학교처럼 캠퍼스가 잘 되어있는 학교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제가 파견되었을 때 한국인은 약 10명정도로, Undergraduate이나 Postgraduate하러 온 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내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 승마, 하키, 발리볼, 탁구, K-POP society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제한없이 모두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Fresher's Fair라고 하여 갓 들어온 새내기들을 위한 행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동아리 부스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 학교는 Colchester와 Southend, Loughton에 각각 캠퍼스가 있습니다.</p>
2019-2학기 수업 (Autumn Term)	<p>다음은 모듈코드, 과목명, 교수님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과목코드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Ex) CE262- CE는 Computer Science and Electrical Engineering을 뜻하고, 262에서, 첫번째 숫자 2는 2학년, 두번째 숫자는 과목의 난이도를 뜻합니다. Undergraduate 학생에게 있어서는 난이도 6이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AU, SP, FY는 가을학기, 봄학기, 가을과 봄학기로 수강기간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CO의 뜻은 Colchester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목코드를 잘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CE262-4-AU-CO, Engineering Mathematics, Dr. Manoj Thakur: 이 과목은 공업수학이며, Lecture와 Lab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Lecture에서는 개념설명을 하며, Lab에서는 강의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교수님이 주시는 Question pdf file을 MathLab을 통해 푸는 것입니다. 푸는 과정은 Logbook을 써서 남기며, 이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너그러운 분이셔서 늦게 제출하여도 말씀드리면 봐주시기도 합니다. - 실제로, 제출하기만 하면 노력을 인정하여 일찍 낸 다른 학생들과 같은 선상에 채점하겠다고 수업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채점요소로는 정해진 Week에 보는 시험이 3번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각각 약 10%로, 잘 봐야 합니다. Logbook, 3번의 쪽지시험이 총 합쳐져서 Coursework이며, 30% 비중입니다. 나머지 70%는 Summer term에 보는 시험입니다.

CE221-5-AU-CO, C++ Programming, Dr. Michael Sanderson: 이 과목은 C++ 프로그래밍이며, 30% Coursework, 70% Exam입니다. Coursework 중, 2번의 과제가 있습니다. 각각 15%씩의 비중으로, 과제를 잘해야 합니다. 과제가 연습문제가 아닌, Advanced의 문제로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Lecture와 Lab 중, Lab에서 Question Solution을 일주일 후에 업로드를 하시는데, 이 Solution이 Assignment와 연관된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Lab을 열심히 하면 Assignment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별명은 Mighty Sanderson입니다...

PY111-4-FY-CO, Introduction to Philosophy, Professor Irene McMullin: 이 과목은 철학 개론입니다. 이 과목은 교수님이 두명으로, 총 두 개의 학기 동안 수강합니다. Lecture와 Seminar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각각 Seminar tutor를 배정합니다. 매주마다 Lecture 1개, Seminar 1개의 수업이 있습니다. 매주에 수업할 Article을 읽어가지 않으면, 수업과 세미나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학기중에 2번의 1000 Words Essay Assignment가 있습니다(채점은 Seminar tutor가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업은 독서를 주기적으로 잘할 자신이 있으면 수강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교수는 BBC에 출연한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AR115-4-AU-CO, Art, Sex and Death, Dr. Diana Presciutti: 이 수업은 미술사 과목입니다. 제가 가장 흥미로워 했던 과목 중 하나입니다. 매주마다 읽어야 할 Reading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은 교수님께서 이 Reading을 바탕으로 내주시는 4번의 300 words Summary 과제입니다.

	<p>(채점 시 점수가 가장 높은 3개의 과제만 들어감.) 참고로 Summary는 10% 내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2번의 Essay Assignment가 있으며, 자기가 원하는 주제 및 페인팅을 골라 Social problem을 찾아내 분석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 교수님의 분야는 미술작품을 통해 Social problem을 찾아 분석하는 것입니다.</p> <p>또한, 이 수업은 한번의 Field trip이 있습니다. London의 National Gallery에서 만나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미술작품을 큐레이팅 하는 수업입니다.</p>
<p>2020-1학기 수업 (Spring term)</p>	<p>PY111-4-FY-CO, Introduction to Philosophy, Dr. Matthew Burch: 마찬가지로 Spring term의 철학 개론입니다. 봄 학기 때에는 현대철학(정치철학)에 대해 수강하였습니다. 확실히 Article은 읽기가 그나마 고대철학 Article에 비해 쉬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Seminar가 있으며 Seminar tutor는 바뀌지 않습니다. 1번의 2000 words Essay Assignment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젠틸하십니다. 이 과목은 Summer term에 고대철학 4문제, 현대철학 4문제하여 Essay 쓰기 형식의 시험이 나옵니다.</p> <p>HR104-4-SP-CO, Resisting Empire, Dr. Sean Kelley: 이 과목은 Resisting Empire입니다. 이 수업은 매주 Article을 읽어가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든 과목입니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분야는 African, Asia, Europe입니다. 이 과목은 Coursework 100% 과목으로, Essay Assignment(95), Seminar Participation(5)이 중요한 과목입니다.</p> <p>CE152-4-SP-CO, Object-Oriented Programming, Dr. Sebastian Halder: 이 과목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1학년이 배우는 과목으로, JAVA를 이용해 배웁니다. Lecture와 Lab이 있는데, Lab때에는 Lab실 컴퓨터의 IntelliJ를 통해 매주 할당되는 Question Pdf File을 푸는 것입니다. 이를 풀고 tutor 앞에서 Demonstrate하면 2%의 점수를 받습니다. 총 3번의 과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우나, 후반가면 점수가 조금 잘 깎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장 중요한 Assignment가 있는데 약 4주동안 풀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쪽지시험이 있는데, 10%대의 비중으로 잘 보셔야 합니다. 그 후, Summer term에 70% 비중의 Exam이 있습니다.</p> <p>CE204-5-SP-CO,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Dr. Michael Sanderson: 이</p>

	<p>과목은 자료구조입니다. 유급하는 학생이 많은 과목 중 하나입니다. Lecture와 La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 Programming과 마찬가지로 Lab실의 Solution 코드가 Assignment와 많이 연관되어 있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은 2번의 Assignment와 1번의 쪽지시험으로 이것이 30%의 Coursework입니다. 이 세 개 모두 잘 봐야, Aggregate 점수 나왔을 때 Summer term Exam 망한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과목의 Assignment 모두 어렵습니다.</p> <p>☞ Essay 점수 잘 받는 Tip: 이 정보는 Essex 대학교 출신 순천향대학교로 교환학생 왔었던 친구에게 들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Essex 대학교에서 과탐하여, 교무처에서 과탐공지메일을 받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말로는 첫번째 Essay는 열심히 최대한 쓰고, 점수를 받은 후에 다음 Essay를 쓰기 전에 교수님께 Email을 하여 어느 점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상담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계신 것이니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두루뭉실하게 말씀 안하시고, 어느 Essay를 바탕으로 참고하라는 등의 다양한 tip을 주시니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경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영국에서 국제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유명합니다. 교환학생들을 위한 과목들 또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ilberrad Centre와 Talent Development Department등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는 UK TOP 10 Park로 유명합니다. Lake가 진짜 예쁘니 한번쯤 근처 벤치에 앉아서 샌드위치 드시면서 풍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청동오리 떼가 몰려와서 Lake 앞에서 수영합니다. 또한, Essex Abroad Office에 초기 정착 시 하는 Orientation Program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Peer Mentor 프로그램의 경우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Peer Mentor들이 Campus Tour를 같이 해줍니다. English Language Assessment가 있는데, 이것은 적당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8과목에 보충과목 1개가 늘어납니다. 영어가 제 2외국어인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비가 오긴 오는데 보슬비 수준으로 내려서 처음에는 우산을 썼지만, 나중에는 귀찮아서 우산을 안 쓰고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겨울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한국에 비해 별로 춥지 않습니다. 여름은 한국처럼 더울 때 많이 더운 그런 날씨가 아닌 초여름 날씨입니다. 추위를 탄다면 전기 담요를 추천하기는 하나, 이는 기숙사 규정상 불법입니다. 구매 시 고려하시고 사길 추천합니다.</p>
안전	<p>늦은 밤에 과제 하느라 도서관에 새벽 2~3시까지 과제하고 기숙사를 가고 있었는데, 술 취한 학생들이 선을 넘은 행동을 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있어서 안전하였습니다. 캠퍼스 내에는 밤낮으로 일하는 Security Patrol이 있습니다. 비교적 캠퍼스내는 안전합니다. 단, 밤에 캠퍼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친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Colchester 시내의 무료공중화장실은 사용자제하기 바랍니다. 가끔 질 나쁜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 차라리 카페에서 2파운드 대의 커피를 구매 후, 그 카페의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제 많은 영국 친구들이 이 방식을 추천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p> <p>저는 University Quays의 Sainty Quays에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주방이 가장 넓은 기숙사로 손꼽히는 Flat(9.5/C)에 살았습니다. 개인용 화장실과 책상 1개, 침대 1개가 방에 있었습니다. 드라이기 등의 개인용품은 스스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가끔 Quays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 이 기숙사는 교환학생들에게 배정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숙사 배정순은 정규학생 1학년, 석사학생&gt;&gt; 교환학생&gt;&gt; 신청 못한 1학년 학생, 한학기만 공부하는 교환학생 순입니다. 2학년과 3학년에게는</p>

기숙사 배정될 확률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기숙사내에 Wifi는 Glide라는 회사의 Wif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조금 느립니다(빠른 와이파이=유료결제). LAN선은 하나로, 기숙사 내에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세탁의 경우, Circuit Laundry라는 회사의 제품을 씁니다. Top-up 카드는 기숙사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2). Top-up은 Circuit Laundry 회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결제 후 Code를 받아 Laundry room 안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빨래 £3.1, 건조 £ 1.6)

-----  
다음은 기숙사 별 평가입니다. 모든 기숙사는 인덕션을 사용합니다. 또한, 주방 내에는 냉장고, 냉동고, 전기주전자, 식탁이 주어집니다. 모든 기숙사의 Laundry Room에는 Circuit Laundry 회사의 세탁기 및 건조기가 있습니다.

----- 캠퍼스에 가까운 기숙사로 손꼽히는 곳-----

The Towers - 이 기숙사는 아는 한국인 분이 사셔서 방문해보았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Global Village와 기숙사 형태가 비슷합니다. 플랫에 방 4개와 그 가운데 화장실 1개입니다. 기숙사비가 가장 싼 곳으로 손꼽힙니다.

South Courts- 제 아는 친구들이 여기에 살았는데, 여기 시설 나쁘지 않습니다. 캠퍼스 내 기숙사 중 괜찮은 기숙사로 손꼽힙니다. 학생들에게 각 1개의 방이 주어지며, 안에는 침대 1개, 화장실 1개, 책상 1개입니다. 그리고 주방은 같이 공유합니다.

The Houses: 아는 동아리 친구가 여기에 살아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방이 약간 좁습니다. 단,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니 나쁘지 않습니다. 방 구조는 South Courts와 동일합니다. 단, 방이 South Courts에 비해 살짝 좁습니다.

⇒ 이 기숙사들의 단점으로는 Tesco와 거리가 멉니다. 캠퍼스 내 The Store라는 편의점 형식의 Grocery store가 있긴 합니다만, 재료가 Tesco에 비해 그다지 신선하지 않습니다. 급하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Laundry room은 The Towers와 The Houses가 공용으로 쓰는 The Hexagon 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에 있으니 바로 보이실 겁니다.



	<p>Campus에 가장 가까운 순위: The Copse&gt;&gt; The Meadows&gt;&gt; University Quays&gt;&gt; The Maltings</p> <p>추천 순위: The Meadows&gt;&gt; The Copse&gt;&gt; University Quays&gt;=The Maltings</p> <p>-----</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p> <p>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기타 ( )</p> <p>식사비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한국 돈 50만원이면 약 300파운드라고 가정하면, 영국은 식재료가 그다지 비싸지 않아 일주일에 60파운드, 4주면 240파운드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남은 60파운드로는 잠깐 런던 가서 놀고 오고 그랬습니다.</p> <p>-----Grocery store-----</p> <p>-Let's go market (아시아 푸드 마켓): 이 편의점은 한식, 중식 등 아시아 푸드 마켓입니다. 많은 한중일 친구들이 애용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라면, 참기름, 멸치액젓, 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등 다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결제 시 Student Discount 10% 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 칼의 경우, 안전상의 위험으로 Tesco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매하세요.</p> <p>-Tesco: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Grocery store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Clearance sale이라고 하여,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엄청난 할인가에 많은 재고가 판매됩니다. Easter에는 부활절 초콜릿이 많이 팝니다. 초기 정착시에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물품들을 구매하니, 재고가 없는 시간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월~토 24시간, 일요일은 아침 9시~오후 4시까지입니다. 참고로,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장볼 때 쓰는 에코백을 사가면 도움이 됩니다. Tesco에는 이런 에코백이 없습니다. (0.75파운드의 일회용 비닐봉지 재질입니다.) 이 에코백을 사전에 가져오실 경우, Laundry Basket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정착 시 물품이 없을 경우, Amazon이나 IKEA에</p>

시켜보세요. 저렴한 물품 산 친구들의 경우, 6달이 채 되지 않은 채  
망가진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Colchester 시내에 Japanese, Chinese, Thai Restaurant은 있으나, Korean  
Restaurant은 없습니다. Nando's와 Bill's는 영국에서 유명한 체인  
레스토랑이니 한번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Heavenly Dessert  
Café도 유명한 체인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어요.

-시내에 백화점이 있기는 한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 가까우니 한번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Campus Restaurant-----

-Buffalo Joe's: 많은 학생들이 여기 버거가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먹을 만하니 드셔보세요.  
참고로 제 영국인 친구가 여기 Waffle이 그리 맛있다고 하네요.

-Fusion: 별로 좋아하지 않는 레스토랑 중 하나였습니다. 별로 맛이  
없어서 안갔습니다. 개인마다 입맛의 차이가 있으니 한번쯤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순천향대학교로 교환학생 온 Essex 대학교 출신 친구가  
Steak가 맛있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Moa: 몇몇 친구들이 버거 맛있다고 하는데....아....저는 그리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개인마다 입맛의 차이가  
있으니 한번쯤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Zest Fresh: 네.....브리오슈 먹어보았습니다. 네....

- Canteen: 전형적인 British Food를 파는 곳입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니  
재밌습니다. 단지, 매주가면 질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침은 British  
Breakfast, 점심에는 Italian이나 British Food, 저녁에는 점심에 판매하다가  
팔리지 않은 음식 판매합니다. 한번쯤은 드셔보세요. 제 입맛에는 맞아서  
애용하였습니다. 영업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간단한 British 음식과, 일요일에는 버거를  
팝니다.

-The SU Bar: 이 장소에는 Pub과 Starbucks가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Starbucks에, 저녁에는 pub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술에 관하여,  
한국에 비해 그리 쉼 술들이 아니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Starbucks의

교통	<p>경우, 한국처럼 잘 되어있는 것이 아닌, 약간의 부스처럼 운영하고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Lakeside Theatre Café: 많은 영국인 친구들이 할 것 없을 때 여기로 음료 마시러 갑니다. 이 카페에서 가끔 파티 한다는 광고도 합니다. 여기 앞에서 많은 이벤트(공연)들도 합니다. Lake쪽에 있어서 가끔 날씨 좋을 때 가면 기분이 좋으니 한번쯤은 가보세요.</p>
	<p>또한, 마지막으로 매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마다 장터가 열리는데, 거기서 빵을 파는 부스도 있고, Egg-fried noodle을 현장에서 바로 해주는 부스도 있으니 한번쯤은 드셔보세요. 또한, 앞으로 가면 중고 책이나 CD를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 한번쯤은 가보세요. 지금은 볼 수 없는 LP판도 보입니다.</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기숙사에서 학교내까지 버스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중간 지점에 데려다주기 때문에, 20분 거리여도 걸어서 다녔습니다. (버스 사용시 약 1파운드가 살짝 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스쿠터,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University Quays나 The Maltings 사는 경우 전기 스쿠터 외에는 답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구매는 120파운드입니다. 매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자전거 판매 부스가 Silberrad 건물 앞에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항공료는 편도 약 80만원에 이용하였습니다.	대한항공 타면 직항입니다.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학비는 순천향대학교에 납부.
비자+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823.00 (자세한 비용은 아래 비자발급절차 참고)
숙소	4달에 한번, 총 3번 납부하였습니다. 1회당 약 1900파운드, 총 5700파운드	£5700
식비	한달에 식비 500 파운드 넘기지 않았습니다.	
교통비	놀러갈 때 빼고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 시내 왕복 비 약 2파운드. 레일카드 30파운드	
책값	책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기타1		
기타2		
합계	(학비제외) 1700만원	약 2600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Tier 4 비자 발급 절차 때문에 애먹었습니다. 항공편을 언제 사야 하는지, 공인번역은 언제 해야 하는지 등 많이 헤맸습니다. 실제적인 절차는 교환학생 선발되고 난 후, 다음 학기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은 날짜, 단계별로 나열하였습니다.

Tier 4 (General) Student Visa 발급 절차:

(2019.3.14) Step 1: 순천향대학교에서 Essex Abroad Office로 학생 Nomination.

=> Derek 선생님께서 Essex Abroad Office로 Nominate를 해주실 겁니다.

(2019.5.9) Step 2: Essex Abroad Office로부터의 Online Application Link 수신.

=>이 과정은 학생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목 수강희망과목 오류 시 나중에 학교가서 수정하면 되지만, 개인정보 오류는 바로 알려야 합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학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다르면 비자발급절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순천향대학교에는 Derek 선생님께서 이 과정에서 정말 잘 도와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환학생 부류에는 Erasmus+ Study/Exchange, Exchange, ISEP Exchange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2번째인 Exchange입니다. 첫번째의 Erasmus는 유럽 학교들 간의 연합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 ISEP은 우리학교가 아닌 서울시립대학교 등 ISEP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교환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천향대학교는 두번째 Exchange입니다.

(2019.5.17) Hidden step: Essex Abroad Office로부터의 Missing Document Alert.

=> 가끔씩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 생기는 오류입니다. Online Application 작성 중 어학성적 pdf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아서 Essex Abroad office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019.6.7) Step 3: Essex Abroad Office로부터의 Offer Letter 수신.

=> 이 과정에서 받은 Offer Letter는 여러분들이 University of Essex에서 공부하기로 한 것을 확정 짓는 Letter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비자발급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잘 보관해두세요. 영국에서의 1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써 있기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Expected Date of Arrival은 Sunday 29<sup>th</sup> of September 이었습니다. 이 이메일에 써있는데, Full year exchange student에 한해서만 기숙사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편지내에 Here 버튼을 누르면, 교환학생으로 University of Essex에 가는 것을 Confirm 하는 것입니다.

(2019.6.25) Step 4: Essex Abroad Office로부터의 Pre-CAS Questionnaires 수신.

=> 6월 25일에 Pre-CAS 질문들을 작성하라고 받았고, 이를 작성하여 다음날 Essex Abroad Office에 제출했습니다. 단, 작성 시 잘 읽어보고 하세요.

(2019.7.3) Step 5: Essex Abroad Office로 Accommodation Application Form 제출.

=> 2019.6.24에 Essex Abroad Office로부터 기숙사 신청 양식을 받았습니다. 신청 양식을 보면,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Single-Ensuite, Double-Ensuite, Ensuite-premium, Ensuite Premium Plus, Single Shared Facilities. 첫번째는 개인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는 원룸 사이즈방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개인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는 투룸 사이즈 방을 의미합니다. 세번째는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고 사이즈가 큰 방을 의미합니다. 네번째는 세번째보다 좀더 큰 방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방을 사용하되, 화장실은 공유하는 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single-gender flat에 살고 싶은지 등등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19.7.31) Hidden step: Essex Abroad Office로부터의 Missing Document Alert.

=> CAS 비자 발급 팀이 흑백이 아닌, 색깔이 있는 원본 성적표가 필요하다고, 다시 제출해달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성적표는 반드시 색깔이 있는 원본 성적표를 발급하세요.

(2019.8.1) Step 6: Essex Abroad Office로부터의 Module Approvals 수신.

=> 이 과정에서 승인된 과목들이 있을 것이고, 승인되지 않고 누락된 과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승인이고, 학교 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 교환학생은 (Essex 전용)120 Essex Credits=(유럽)75 ECTS=(한국) 40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2019.8.8) Step 7: University of Essex Visa Team으로부터 CAS statement 수신.

=> 이 과정에서 비자 발급 시 가장 중요한 CAS statement를 이메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하니 잘 챙기세요.

(2019.8.9) Step 8: UKVI 사이트를 통해 비자 발급 비 지불.

=> 이 과정에서 (공인 번역된)영문 잔고증명서-3만원, 기숙사 증명서, 재학증명서, 결핵 검사 진단서, 여권 사본, (공인 번역된)가족관계증명서-3만원, CAS 제출합니다. 이때, NHS 비용 USD 381.00 냈습니다, 비자 비용 USD 442.00, 총 USD 823.00를 냈습니다. 모두 결제까지 하고 나면, 바로 IHS Reference Number를 받습니다. Reference Number로 다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 결핵검사의 경우, 한국의 경우 신촌 세브란스와 강남 세브란스 둘 중에 한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의 경우, 사람이 붐비지 않아서 제가 갔던 곳입니다. 그때 저 밖에 없어서 빨리 끝났습니다. 강남 세브란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결핵 검사하러 가는 곳으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결핵검사의 경우 7월에 가장 붐비니, 사전에 세브란스 웹사이트를 통해 결핵검사 예약을 하고 빠르게 해놓길 추천합니다. 결핵검사의 경우 비자 발급 때 한달 전 것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영문 잔고증명서 또한 그렇습니다.)

=> 또한, BRP 수령 주소 다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UNIVERSITY OF ESSEX COLCHESTER CAMPUS, C/O TIER 4 COMPLIANCE TEAM, UNIVERSITY OF ESSEX, WIVENHOE PARK, COLCHESTER, CO4 3SQ

=> 비자 발급 시작 시, UKVI 사이트에 들어가 개인정보 제공 후, VFS Global로 (연계)넘어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모두 완비한 후 비자 발급을 시작하세요.

(2019.8.19) Step 9: VFS Global 센터 방문.

=> 저는 비자센터에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15분에 방문했습니다. 가면 소지품 검사합니다. 이때 가져가야 할 것은 예약 영수증/편지, 여권, VFS Global 사이트에 업로드한 서류(CAS, 기숙사 체류주소, 결핵검사, 영문 잔고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들 원본입니다. Visa4uk라는 사이트도 있긴 한데, 대부분 VFS Global 사이트에 직접 신청합니다. 비자센터에 가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하라는 제시를 합니다. 안 사셔도 됩니다. 단, 업로드한 서류들, 예약 영수증 한 장이라도 없을 경우 현장에서 19900원 납부하고 다시 출력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저는 그때 CAS statement를 늦게 받았다고 생각해서, SMS Service를 USD 2.70주고 샀습니다. (SMS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여권이 한국을 떠난 시간- 여권이 영국에 도착한 시간 - 여권이 영국을 떠난 시간 - 여권이 한국에 도착한 시간 순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방문수령하기 보다 택배수령을 선호하기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Courier Service: USD 16.84 입니다.

=> VFS Global 회사는 서울 중구에 있습니다. 아래에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2019.8.29) Step 10: VFS Global로부터의 Tier 4 비자 수령.

=> 이때, 여권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2일내에 택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가 한 장 같이 동봉되어 오는데, 이것을 반드시 챙기셔서 영국으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2019.9.11) Step 11: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 수령.

=> 학교로부터 BRP 수령하라고 이메일이 옵니다. 학교 도착하시면 수령하면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골 때립니다. 아는 중국인 친구가 런던 여행 갔다가 여권이랑 BRP 잃어버렸는데 BRP 재발급비용만 15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2019.9.27) Step 12: University of Essex로 출발.

=> 이때 Essex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예매했습니다. 가격은 45파운드입니다. 만일

2명이서 갈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혼자 가서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때 당시 버스 픽업 장소는 Heathrow Airport Terminal 2 입니다. 다른 터미널에 내리실 경우 아래 -1층의 Terminal 간 기차를 이용하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차 값은 무료입니다. 참고로, 기숙사 입사는 9월 29일 이었는데, Accommodation Office는 사전 입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날짜 지켜서 가셔야 합니다. 일이 있을 경우, Accommodation Office에 알리시면 됩니다.

=> 사실 학교 가는 방법은 한가지 더 있습니다. Heathrow Airport에서 Heathrow Express를 타고 Paddington Station에 내려서 Underground를 타고 London Liverpool Street에 내립니다. [이 과정이 시간 절약을 많이 해줍니다.] 거기서 Greater Anglia(앱)을 다운로드하여, Hythe나 Colchester로 가는 기차를 예매하여 가면 됩니다. 약 1시간 30분정도 걸립니다. 만일 Colchester에 내릴 시, 61번이나 62번 버스를 타면 학교 내부까지 버스가 운행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걱정해야 할 것은 버스가 파업할 경우 환승을 자주 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또한, 한국인 여권으로서 우리는 E-Passport Gate와 일반 Gat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로는 E-passport Gate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Tier 4 비자의 경우, E-Passport Gate를 사용한 경우, 비행기 티켓 기록이 남지 않아서 Essex Visa Team으로부터 비행기 티켓 사진 보내 달라는 이메일이 옵니다. 이것은 별 문제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19.10.01) NHS 건강검진, 학생증 수령

=> 기숙사 키를 받을 때, 편지와 함께 무엇을 받을 것입니다. 그 종이를 작성하여 탁아소 옆에 있는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별일 없습니다. 단지, 예방접종 홍보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겁먹은 척하고 가버리세요. 순서는 사전 작성된 종이서류 제출-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의사 면담 - 예방접종 유무 확인 순입니다.

=> Lakeside Theatre쪽에 가보면, Gym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학생증 수령을 했습니다. 사전에 Essex Abroad Office가 쓰라는 Personal Information 다 제대로 써냈으면 직원분도 학생분도 학생증 발급하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2019.10.03) Silberrad Centre에서 Bank Letter와 BRP 수령.

=> Essex 학생증을 꼭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센터 2층에 가시면 BRP 수령 줄과 Bank Letter 신청줄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 옆에는 학비 혹은 기숙사비 지불 줄입니다. Bank Letter의 경우, 학교 내부에 있는 은행, 외부에 있는 은행 모두 되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부에는 Lloyd, Santander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Santander를 선택했습니다. 은행 방문 시에 BRP, 여권, Bank Letter를 가지고 방문하세요.) 중국인 친구들은 대부분 HSBC를 사용해야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BRP

수령하실 때 Bank Letter를 수령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초기 정착 시 은행 계좌를 만들려는 국제학생들이 많습니다. Santander 은행 문 여는 시간(아침 9시) 15분 전까지 도착하여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은행 계좌 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19.10.04) 학기 시작. 즐기세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국 친구들 말로는 영국에서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애들은 친구를 사귄 때 반드시 Club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Table Tennis Club에 참여했습니다. Free Session이라고 하여 2~3주간 무료로 Club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때 친구들을 만들어서 Gym 예약해서 같이 운동하고 놀았습니다. 나중에는 차 있는 친구를 통해 콜체스터 시내에서 Pub가서 놀기도 하고, Dessert Café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교환학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상대방의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Club은 Free Session 종료 후 40 파운드를 내고 유료 이용을 해야 합니다.)

혹시 런던 여행을 잠깐 가고 싶으신 분은 Hythe Station을 통해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Greater Anglia 앱을 깔고 London Liverpool Street로 가서 Underground 타고 가시고 싶은 곳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국 학생들이 집 갈 때 Hythe Station을 이용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밤 9시 이후 Tesco 주위에 Burglar가 돌아다닙니다. 어느 노숙자분이 집에 갈 돈이 없는데, 기차 티켓 값이 2.7파운드인데 ATM에서 꺼내 줄 수 있냐고 하면서 동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돈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전에 영국 친구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방지책을 알았습니다. 방지책은 그냥 따라붙으면 차가운 눈길 주고 무시하고 가버리시면 됩니다. 애초에 저게 사기인 것이,

영국 ATM에서는 동전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런던에 도둑이 많다고 하지만, 여행객처럼 안 다니면 도난당할 일 전혀 없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핸드폰 보고 하면 누구라도 여행객 같아서 소지품을 집어갑니다. 저는 National Gallery가다가 도둑이 그냥 앞에 여행객처럼 보이는 일행의 핸드폰을 아무일 없다는 듯이 탁 잡고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행객처럼 보이지 마세요. 또한, 대낮에 혼자서 런던에 있는 McDonalds나 Burger King 같은 큰 레스토랑에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여행객들이 도난의 대상이 된다고 영국인 친구들이 말해주었습니다.

Gym 사용의 경우, 기숙사 이용 시 처음부터 Silver membership이 주어지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당 최대 1시간 30분정도 예약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Fresher's Fair라고 하여, 초기 정착 시 동아리 홍보가 있으니 꼭 가보고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친구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기 정착 시, Essex에서 판매하는 Single Bedding set가 있는데 기억상 40파운드입니다. 아니면, 학교 오기 전에 John Lewis나 Marks & Spencer 같은 백화점에 학교 주소로 택배 보내 놓으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도착하면 학교 이메일로 기숙사 사무실이 택배 받았다고 이메일 옵니다.). 기숙사 사무실(택배 수령시간)은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시간 맞춰 안 오면 칼같이 안 줍니다, 초기 정착 시 주의하세요.).

Essex Abroad Office에서 Incoming Exchange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꼭 가보길 추천합니다. 모임에서 안면을 트고 나면 친구 사귀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는 Essex 대학교 학생회장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나이지리아 친구도 만났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Essex Abroad Office에서 주최하는 Study-Abroad Fair가 있는데, 그것 또한 재밌는 경험입니다. 학교를 홍보하는 경험이니 한 번쯤은 해보세요. 순천향대학교 기념품이 그렇게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갔습니다.

친구 사귀기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티타임을 가지는 것이 아닌, 요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면 플랫 주방에 둘러앉아서 같이 파티하면서 밥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매우 추천합니다.

비자발급의 경우, 영문 잔고증명서는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이를 발급 시 발급자는 은행계좌가 그날 하루 잠기므로 딱 한번 제대로 하세요. 공인번역의 경우, 다양하게

많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결핵검사 시 영국 체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냥 Essex 대학교 주소 적으세요, 문제없습니다.

핸드폰 요금제의 경우, 영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처럼 후불제입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영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한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국제학생들은 영국 체류 주소가 없으므로 후불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Youtube처럼 구독 개념의 요금제입니다. Vodafone 같은 큰 회사는 아니지만, 먼저 요금을 낸 후 그만큼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ssex Abroad Office와 Accommodation Office에서 GiffGaff USIM을 초기에 주니 그것을 사용해서서 개통하시면 됩니다. GiffGaff는 O2 회사의 전산망을 이용합니다. 참고로 GiffGaff는 유럽 전역(또는 쉐켄 지역)에서 쓸 수 있어서 유용하였습니다. (무제한 요금제 25파운드)

Tier 4 비자의 경우, 수업이 없는 날 (금,토,일 혹은 방학)에 유럽에 잠깐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는 Global Village Room Mate와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만났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Single-Ensuite과 Double-Ensuite의 가격 차이는 월 4만원의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지인이 놀러 올 경우를 고려하여 월 4만원 주고 업그레이드하는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학 후 방 바꾸는 것은 Room to Room 교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계약은 깰 수 없습니다.)

Off-Campus Accommodation을 알아보신다면, 빨리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영국인 친구들의 말로는 London이나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1년 전에 미리 방을 계약한다고 합니다.

시험의 경우, Autumn Term과 Spring Term이 모두 끝난 후, Revision Lecture를 과목별 한 회씩 진행한 후, 한달 뒤에 Summer Term 시험입니다. 시험 중에는 Open-book인 시험이 있고, 아닌 시험이 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Revision Lecture는 꼭 보셔야 하는게, 교수님들께서 시험에 대한 힌트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다음은 Essex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링크입니다:

1. [www.moodle.ac.uk](http://www.moodle.ac.uk)  
⇒ 교수님들께서 Reading과 Solution 등 다양한 수업자료들을 업로드하는 사이트입니다.
2. [www.faser.essex.ac.uk](http://www.faser.essex.ac.uk)  
⇒ 과제를 제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기간에 맞춰서 과제를 제출하세요.
3. [www.essex.ac.uk/student/attendance-and-engagement/absence](http://www.essex.ac.uk/student/attendance-and-engagement/absence)

⇒ 학생들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있을 때 결석 예정을 보고하는 사이트입니다. 몸이 아플 경우, 간단한 약이라도 업로드하면 Essex Abroad Office에서 수락을 해줍니다. 만일, 결석 예정을 보고하지 않아서 결석을 여러 번 하게 되면, Essex Visa team으로부터 경고메일이 옵니다. 심한 경우, Essex Abroad Office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학생을 불러내어 사태를 파악합니다. Essex Abroad Office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 4. [www.library.essex.ac.uk](http://www.library.essex.ac.uk)

⇒ 이 사이트는 도서관 사이트입니다. Article과 Books를 이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ssay Reference를 위해 사용합니다. 도서관 4층과 5층은 학교에서 Lake 뷰 전망이 가장 예쁜 곳으로 손꼽힙니다. 거기서 간단한 샌드위치와 주스를 먹으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추천합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프린트는 학생증이 있을 경우 무료입니다. (캠퍼스 빌딩에 있는 모든 프린터는 학생증이 있으면 무료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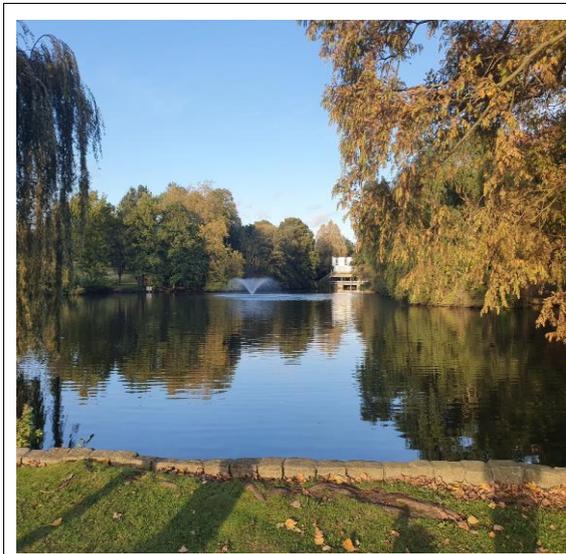
#### 5. Jstor.org

⇒ Jstor라는 논문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있으므로, Essay Assignment시 매우 유용합니다. Reference가 필요한 Essay Assignment에, 도서관 책들과 Jstor Articles들을 참조하여 써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국인 친구들이 쓰는 논문 사이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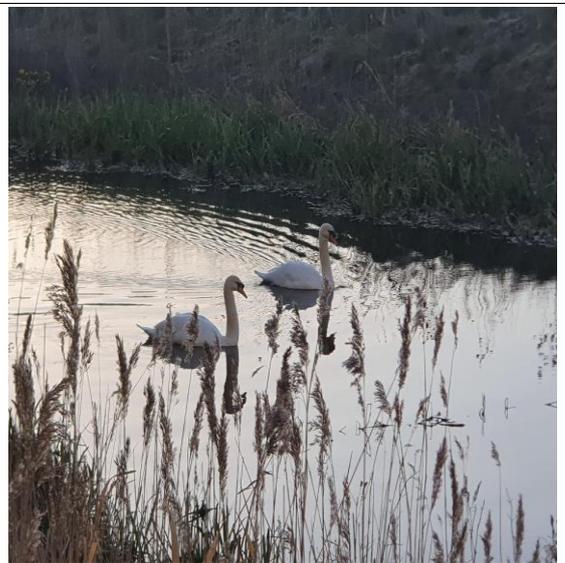
12월 크리스마스 방학에는 과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Autumn Term 과목들 중 Coursework이 있는 과목들은 12월~1월 사이에 Essay Assignment를 내줍니다. 벼락치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학교 파업기간이 많아서 Goodwill Payment 40파운드를 받고, 그 기간에 Essay Assignment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교환학생 파견 전, 딱 한번이라도 Global Village에 살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느 미숙한 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Global Village는 파티가 많아서,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해외에 나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Global Village에 미리 살아본 덕에, 거리낌 없이 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University of Essex Park



The Meadows Lake Swans



학생회장 선거



Guy Fawkes Night



Study Abroad Fair



Christmas Market